

원자력홍보 전문기관으로서 원자력문화 진흥의 기반 구축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은 지난 '78년 고리 1호기 가동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하여 지금은 고리 1,2,3,4호기, 영광 1,2호기, 울진 1,2호기, 월성 1호기 등 모두 11기의 원전이 국내 전력공급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며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이렇듯 국가 에너지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키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도모할 홍보전문기관으로서 1992년 3월 25일 원자력산업계에 의해 설립되었다.

원자력에 대한 국민이해기반 조성

그동안 원자력발전은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전력요금 안정화에 기여하며 국가산업발전과 국민생활 수준 향상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는 달리 원자력이 지닌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국민의 이해는 기대에 못미치고 있어 원자력 사업의 원활한 추



사회 각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년 원자력 공개토론회를 열고 있다.

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의 개발·보급을 통하여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바람직한 원자력문화를 진흥시킴으로써 사회의 공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문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 주요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각종 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쉽고 편리한 원자력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이해사업」, 각계 각

층을 대상으로 강연회, 토론회, 시설견학 등을 실시하는 「원자력문화진흥사업」, 원전 주변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향상을 지원하는 「지역협력사업」, 자라나는 세대에게 보다 풍요로운 세계를 전해주기 위한 「차세대 교육사업」, 원자력관련 해외단체와의 정보교류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국제협력사업」, 그리고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등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정보를 판단하는 「연구·조사사업」 등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대내외적 상황변화에 따른 사업기능 강화

최근 몇년간 우리 사회는 민주화와 지방자치제 정착 등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른 국민의 권리의식 증대 등으로 지역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의 심화 등 일련의 부작용을 겪기도 하였다. 특히 영광 5·6호기 건축허가 취소 사례에서 보듯이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지역의 반대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돌출되었다.

특히 금년은 대선 등 주요 정치일정과 맞물려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지역의 요구와 반대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원자력사업의 추진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OECD 회원국으로서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에너지로서 원자력 발전의 개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또한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한국표준형 원전과 우리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원자력 민간 홍보주체

로서 보다 성숙된 체제를 갖추기 위해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원자력 홍보체계를 개선하는 등 사업기능을 더욱 강화하였다.

먼저 비탄력적인 조직의 침체현상 방지와 홍보전문화 및 능력제고를 위한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사업의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한 본부장제를 도입하여 원자력 현안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종합홍보대책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총력홍보를 전개함으로써 원자력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제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모색하였다.

또한 대국민 홍보를 주축으로 하면서 지역홍보의 취약점을 보강하고 차세대 홍보를 위한 전담기능을 부여하는 등 전 부서의 사업화를 통한 홍보기능을 한층 강화하였다.

대국민 홍보사업의 지속적인 전개

원자력에 대한 국민이해증진을 위해 <생활과 원자력> <원자력문화정보> 등 이미 발행되고 있는 정기 간행물의 내용을 더욱 알차게 꾸미는 한편, 원자력 총서 규모의 단행본과 동화, 만화, 리플렛, 월차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홍보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작, 배포해 나가고 있다.

또한 「원자력 공개토론회」 등 이벤트성 문화행사와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원전시찰과 강습회, 평생교육원 원자력강좌 개설, 지방 공무원교육원 원자력강사 파견 등 원자력이 국민 생활문화 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교육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기에너지관과 원자력이동전시관 등 전시홍보사업도 함께 전개해 나가고 있다.



원자력관련 세계 석학을 초청 특별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원전지역주민 이해기반 조성

지방자치시대의 변화된 여건에 맞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국민 홍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지역의 특성에 알맞는 홍보 기법을 도입하여 원자력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려나가고, 특히 지역협력 강화를 위해 현재 영광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영광원자력문화진흥회' 등 원전지역에서의 친원전 자생단체의 추가결성 및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전 지역주민의 이해기반을 조성하는데 더한층 힘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 등 여성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노래자랑대회와 초·중·고생 사생대회 등 다양한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밀착된 원자력문화공간을 넓혀 나가고 있다.

차세대 교육사업 강화

차세대 교육의 강화로 장기적인 지지기반을 확보해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교원, 근로청소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원자력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생 및 우수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원자력 학습회와 청소년 원자력캠프, 중등교사 워크샵, 대학교수 세미나 등 교육문화행사를 활성화하고, 우수 장학생 선발과 대학생 원자력논문공모, 중고생 작문 공모 및 시상 등 장학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육방송 매체를 활용한 영상사업의 전개와 함께 교육용 영상물 제작·배포, 교사들에 대한 강습회, 현장견학과 원자력 캠프 개설 등 각종 문화행사의 확대에 이들의 지지기반을 확장하는 한편, 초·중·고교 교과서에 원자력 관련 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교과과정 연구 및 개편작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전주변지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사생대회 장면

원자력 PA 정보센터 역할 수행

이밖에도 계량화가 힘든 홍보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치를 구하는 사업평가 및 분석능력을 높이고, 일반국민과 원전 및 후보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원자력에 대한 의식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원자력 PA활동의 자료로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다.

원자력 정보수집 및 반핵자료에 대한 조사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여론 향배를 파악하기 위한 여론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원자력자료실 운영을 통해 국내외에서 발간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등 원자력 PA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높여 나가고 있다.

재단의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비전 제시

올해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궁극적인 사업

목표인 원자력문화진흥의 새로운 도약을 지향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단설립 5년째를 맞이하여 원자력 홍보주체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재단의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진직원이 자질향상을 통해 홍보전문요원이 될 수 있도록 사내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써 나가고 있다.

아울러 원자력산업이 세계화와 지방화시대를 뒷받침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나아가 21세기를 주도하는 첨단산업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대국민 계몽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뜻깊은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전 임직원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